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7월 11일(금)

...(음력 6월 17일)...

Пятница

11 июля 2025 г.

№ 27 (1214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의 두번째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어민의 날로 기념한다. 올해 이 기념일은 7월 13일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주민 여러분!

어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섬들에서는 이 휴일을 수산업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낚싯대를 들고 여가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기념합니다.

수산업은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경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국민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오늘날 현지 기업들은 고품질의 신선한 해산물을 시장에 공급하며, 섬 지역과 전 러시아의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할린·쿠릴 수산업계는 사회 공헌에도 적극 참여해 '저렴한 생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특별 군사 작전 지역에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 수산의 설비 현대화와 무폐기물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량과 품목을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레저 어업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송어 1일 최대 허용 어획량을 3마리에서 5마리로 늘렸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어민들, 어업 감시원 및 수산 과학 분야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사할린주 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리마렌코 지사 '투자등급은 기업-정부 협력의 척도'

지난 7일(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투자 위원회의 주요 주제는 국가 투자 환경 평가였다. 사할린 주는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높은 순위를 유지하며 전국 지역 중 4위를 차지했다.

국가 평가의 가치는 기업가들이 직접 수백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비즈니스 지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영업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감사합니다, 동료, 파트너 및 친구 여러분! 투자 등급은 무엇보다도 기업과 정부 사이의 협력과 신뢰를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국가 순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높은 곳의 운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10분의 1의 점수 차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기원합니다. 사할린 지역은 생활하고, 일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는 투자 위원회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올가 쿠릴로와, 극동연방지구 전략구상청 대표가 사할린 지역의 국가 평가 순위에서 안정적인 성공을 축하했다.

"극동지역이 3년 연속 국가순위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지역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튜멘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가 순위는 70개의 평가 항목에서 100여 개 평가항목으로 확대되었지만 사할린 주는 그 위치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에서는 기업 공동체가 당국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뢰와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는 극동과 중앙 러시아의 동료들로부터 사할린 지역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한 창구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각 지표를 구성요소에 어떻게 배치하고 개선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 극대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행은 이미 효과가 있었고 섬 지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올가 쿠릴로와가 말했다.

권위 있는 국가 등급에서 사할린 지역은 시운전 허가 취득 속도가 러시아 평균을 1.5배 앞지르고 있다. 토지대장 및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연결 속도 면에서 극동 지역 및 국내 최고의 결과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발 구역은 통신에 연결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극동 지역 공공시설 연결 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3면에 계속)

단신

주 지사, 습수섬 군사-애국 캠프 개소식 참석

습수섬에서 군사-애국 캠프가 개장했다. 캠프 개막식에는 와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지사가 참석했다. 습수 방문시 그는 군사역사 기념관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기념관 건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쿠릴 열도 상륙 작전 기념 작업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7월초부터 습수섬에서 국제 탐사원정대 '쿠릴 열도 상륙작전의 흔적을 따라'가 시작되었다. 붉은 군대 및 함대 병사 유해 수색에는 러시아 35개 지역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출신 자원봉사자 100명이 참여한다. 30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참가자 그룹은 이미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사할린,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 실시

사할린섬에서 국가 프로젝트 '데이터 경제' 일환으로 사이버 보안 훈련이 실시됐다. 지역 전문가들은 3건의 복잡한 해킹 시도를 차단해 정보 보안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로만 추지노브 주 디지털발전부 차관은 "정기 훈련으로 사이버 위협 방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할린 극동 연극축제, 1만1천 관객 참여

지난 6월 23일부터 2주간 사할린에서 열린 제6회 극동 연극축제에 관객 1만1천여 명이 다녀갔다. 40편 이상의 공연과 강연이 진행됐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코미사르제브스카야 국립 아카데미 드라마 극장의 연극 '영리한 이도 우직함엔 당한다'로 막을 내렸다.

첫날부터 페스티벌에 참여한 연극 비평가들이 평가를 내렸고, 연기상, 감독상 등 수상식도 진행되었다.

러시아 최초 작가 레지던시 사할린에 개설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테크' 캠퍼스에 2025년 10월 러시아 최초 작가 레지던시가 문을 연다.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주 정부가 지원한다. 여기서 젊은 작가들은 책 쓰는 법을 배우고, 경험 많은 멘토들과 함께 일하며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새로운 공간은 전국 작가들의 창작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러시아 최초의 창작실기 석사 과정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 교육부가 전했다.

유명 러시아 판타지 작가 세르게이 루키야넨코가 '문학 워크숍'을 운영하며 새 작가 양성에 나선다. 참가자들은 출판·영화화를 위한 원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루키야넨코는 "사할린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동방의 파수꾼'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고려신문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7월 8일은 가족·사랑·충실의 날

가문의 인연, 사할린 김씨 가족 이야기

30대인 김 스베틀라나를 필자는 대학시절에 처음 만났다. 한국어교사 전공을 한 그는 사할린국립대의 성실한 학생이었고 무엇보다 한국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느껴졌다.

얼마전 한 행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한번 취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인터뷰할 기회가 생겨 주로 가족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987년생인 그는 올 가을에 결혼한 지 15년이 된다.

"2003년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같은 책상에 앉게 되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개월 반 동안 많이 소통하게 되었죠."라고 남편 왜체슬라브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16살에 만나 20살에 연애를 시작하고 3년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다.

"남편도 김씨고 저도 김가거든요. 본은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본적부터 알아봤어요.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남편 씨족 남자들이 오랫동안 저의 가문에서 집사람을 맞아들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인연이죠."라고 스베틀라나가 웃으면서 말했다.

사실 이들은 장거리 연애를 했다. 스베틀라나는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예비신랑은 블라디보스토크 국동국립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 또한 대학 4학년 때

스베틀라나는 우수 성적자로 뽑혀 교환학생으로 1년간 서울대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2개월 차인 남편보다 대학 졸업이 1년 늦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공부를 더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부모 덕분에 결혼하게 되어 미래가 정해졌다. 두 청년의 진실한 만남을 곁에서 지켜본 부모가 서로 만나 인사하기를 원했다. 그런 자리를 가진 후 스베틀라나의 졸업식이 끝나면 결혼잔치를 하자고 결정이 내려졌다.

결혼 1년 만에 딸아이가 태어났고, 3년 후에는 아들이 태어났다. 현재는 셋째를 기다리는 중이다.

스베틀라나는 대학 졸업반 때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하청업체로 있는 한 한국회사에서 근무했고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는 아이들 때문에 공식 교사로는 취직하지 않고 자영사업가로 한국어번역과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교회에서 한국어 설교를 통역하기도 하니 한국어를 꽤 많이 쓰는 편이다. 딸에게도 한국어와 동요를 많이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아들은 몇 마디 하는 정도이다. 스베틀라나는 여느 부모처럼 아이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 딸은 추가교육으로 미술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돈벌이는 남편이 하고 있다. 중국



어를 배웠지만 졸업 즈음엔 경영에 더 관심을 가져, 부모가 시작한 가족 사업을 이어받아 키우고 있다. 도, 소매로 과자, 식료품 판매 등 개인업을 하고 있다.

스베틀라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관계에 헌신하는 곳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가족에 최대한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책임을 지고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배우며 소속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랑과 보살핌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들은 집안일도 돕고 요리도 할 줄 안다. 남편과 아들은 매운 한식을 즐긴다면 스베틀라나와 딸은 양식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아들은 떡볶이를 할 줄 알고 딸은 샐러드, 또는 초밥을 가끔 만들기도 한다.

필자는 이 말을 들으면서 스베틀라나의 가족이 정말 화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함께 산책하기도 좋아하고, 여행도 잘 즐기는 편이다. 한국에 계시는 조부모도 찾아가고, 연례주에 있는 친구들도 자주 찾는 편이다. 물론 부부싸움을 절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아이들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갈등은 오래 가지 않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계시는 친부모, 시부모에게는 평일에는 한번이라도 꼭 연락을 드려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자주 찾아가 맛있는 것도 얻어먹는다고 한다.

이들 가족에겐 의미 있는 숫자도 있다. 25란 숫자는 네 가족 중 셋의 생일이다. 스베틀라나는 '셋째도 25일에 태어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이들 가족을 보며 평범한 가족의 행복이란 사랑과 충성, 감사로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전동 킥보드
운전 학교 개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킥보드 공유(Kick-sharing) 사업자들은 운전 문화와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한 일련의 행사를 시작했다. 세 개의 전동 킥보드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론 및 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시청 보도부에서 세부 사항을 전했다.

캠페인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주요 도로 교통 규칙, 전동 킥보드 운전 특성, 도로 및 보도에서의 안전 수칙에 대해 배운다.

킥보드 설치 전문가인 김 알렉산드르에 따르면, 킥보드 이용자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언제든지 자전거도로로 불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때 반응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전문가는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의 지원을 받았다. 도시 모빌리티 관리 센터 특별 프로젝트 부서장 데니스 쿠즈민은 점점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규칙과 주의 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쿠즈민은 "우리 과제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사용이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школу
вождения электросамокатов

Операторы кикшеринг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устили серию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вышение культуры вожд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 три оператора электросамокатов не только предоставляют жителям транспорт в аренду, но и проводят теоретическое и практическое обучение.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рамках акций участники узнают об основных пра-

вилах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особенностях управления электросамокатом и правилах безопасного поведения на дорогах и тротуарах.

По словам специалиста по установке самокатов Александра Ким, самое трудное для самокатчика — определить оптимальный маршрут, на котором все равно нужно быть всегда начеку.

«В любой момент может пешеход выйти прямо на велосодорожку. Важно вовремя среагировать и нажать на тормоз», — дополнил специалист.

Данную инициативу поддержала мэр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ак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спе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городской мобильностью Денис Кузьмин, все больше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спользуют самокаты для ежедневных прогулок. При этом не все они знакомы с правилами и мерами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максимально безопасным и комфортным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Кузьмин.

'글린카' 오프로드 레이스 및
진흙 달리기 대회,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개최

지난 7월 5일(토),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서킷 오프로드 레이스 '글린카'가 개최되었다. 이 경주는 점토 채석장에서 열렸으며,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는 우글레고르스크 지방자치구 행정부와 현지 클럽 '레이드'가 공동 주최로 진행했다. 용감한 '지퍼(지프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궤도차(궤도형 차량)'의 강력한 성능을 선보였다.

이 경주는 이 지역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레이스에는 주내 다양한 지프 클럽을 대표하는 실력 있는 레이서들이 험난한 트랙에 도전했다. 행사에는 전국 및 세계 지프 트로피 대회 참가자와 우승자들도 참석했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과 깊은 웅덩이를 모두 극복한 것은 아니어서, 일부 차량은 장애물에서 견인되어야 했다. 현장에는 많은 관중이 모여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레이서의 이름을 외쳤다.

주최자 알렉산드르 드리노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를 대중화하기 위해 대회를 조직했습니다. 초보 선수들도 도전하고 실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과하지 않게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초보자들도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 있게 성장하곤 하죠. 이런 행사는 가능한 한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외로워 하고, 차를 개조하니 보여줄 필요가 있죠. 관객들은 볼거리를 원하고, 오늘만의 만원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주최측이 트로피 레이드 지역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동차 경쟁이 끝난 후, 사람들이 트랙에 나섰다. '강한자의 경우' 행사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오프로드 차량으로 파괴된 길을 주행했다.

Гонка внедорожников «Глинка»
и забег по грязи состоялись в
Углегорском округе

В субботу, 5 июля, в Углегорском округе прошла кольцевая гонка на внедорожниках «Глинка». Она прошла на глиняном карьере. Организовали запоминающее мероприяти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Углегор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овместно с местным клубом «Рейд». Отважные «джипер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сю мощь и силу своих «вездеходов».

Заезд в районе проводят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Сильнейшие гонщ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различные джип-клубы региона, преодолели непростую трассу. Среди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 участники и победител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иров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джип-трофи.

Однако со сложным рельефом и глубокими лужами справились не все — некоторых пришлось «выдергивать» из препятствий. На месте собралось много зрителей, болельщики скандировали имена своих фаворито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чтобы популяризовать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Трассу делаем без излишеств, чтобы начинающие спортсмены тоже 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и проявить себя. Зачастую они пробуют, а дальше — уверенно растут.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가족 · 사랑 · 충실의 날 기념 행사 펼쳐져

지난 7월 8일 (화)가족·사랑·충실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여러 행사장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가까린 공원에서 '나의 가족' 축제가 열렸는데 행사는 어린이 및 젊은 부모 지원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마켓·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젊은 부모 및 예비 부모를 위해 육아 지원 정책·자기계발 기회를 소개한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임신·출산 가이드 '9단계(걸음) 행복한 출산'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주 보건부·복지부·교육부 전문가가 공동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임신부터 경력·가정 생활 균형까지 지원한다.

또한 같은 날 달네에 문화회관이 준비한 가족·사랑·충실의 날에 관한 야외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관객들은 아트단지로 변경된 문화회관 앞마당 공간에서 다양한 마스터클래스, 재능 있는 장인들의 독특한 수공예품 박람회, 홀리 색칠,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수 있었고 지역 예술가와 초청된 예술가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볼 수 있었다.

이날 명절프로그램 중 하나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중환)가 준비한



한복패션쇼가 있었다. 고운 한복을 차려 입은 시한인회 임원, 회원, 이들의 가족은 정말 보기가 좋았다. 이들의 무대를 통해 세대간 연결선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부터 할머니·할아버지까지 출연하여 한인 대가족의 모습이 완벽히 펼쳐졌다.

(본사 기자)
(사진: 시한인회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그릇 1 / 오세영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節制)와 균형(均衡)의 중심에서
빛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파리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魂)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퇴근하고 귀가한 아내가 밖이 엄청 덥다고, 그거 아냐고, 말을 건넵니다. 어지간해서는 더위를 타지 않던 아내가 이렇게 호들갑일 정도면 밖이 덥긴 덥나 봐요. 생각해보니 저는 오늘 하루, 커피 한 잔 마시

러 조차 외출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온 종일 집안에서 데굴데굴 뒹군 건 아니겠지만, 책상머리에 앉아 글을 쓰는 신세인 제가 더울 틈이 있을까요? 에어컨을 온 종일 켜 놓으니 물론 더울 이유도 없었지만, 이토록 바쁜 나날이 언제쯤 한가해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할 때는 있지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할 때조차도 저는 책상 머리에 앉아 뭘가를 떠올리는 중이지만, 스토리가 잘 안 풀리면 그냥 뒹굴뒹굴 자빠져 낮잠 한 번 길게 때리면 좋을 것을, 일련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인 건지, 아니면 선배 작가들 말마따나 이제 탄력을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졸더라도 책상 머리에 앉아 조는 편인데요. 입을 헤에 벌리고, 많이는 아니고 침을 조금씩 흘려가며 조는 편입니다. 뭐랄까, 제가 생각해도 인간적인 매력(?)이 넘쳐나네요. 서울은 이제 용광모처럼 무더위로 돌아섰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대견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어찌다 원고의 반 이상을 2분 만에 써버렸네요, 힐!”

서울은 덥습니다. 33도라고는 해도 대기열이며 복사열, 그냥 뽕층 아래층, 다들 미친듯이 에어컨을 틀어 대니 더울 수 밖에요. 여의도는 바람이 잘 불 것 같지만, 더워요. 아주 덥지요. 오세영 시인의 시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동글동글한 접시 같겠지만, 이게 한 번 깨져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는 건가 봐요. 저는 지구 온난화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겁나 춥다가 열라 덥다가, 지구는 이제 정말 쪼구가 다 되어, 반성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닐까,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 코가 석자인지라,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면 ‘시간’을 떠올립니다. 완벽한 원의 그 대칭을 살피다 보면 황홀하지요. 부드럽기도 하겠지만, 한 번 깨져버리면 이 파편은 더할 나위 없이 날카롭잖아요. 시간을 접목시켜보면 시간만큼 끔찍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추상이 또 없을 텐데요. 오태석의 희곡 <자전거>를 읽다 보면 사금파리로 얼굴을 죽죽 그어가며 자신의 죄를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율의 순간이었지요. 어찌나 울었던지!

뜨거운 여름,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후회한 점 없는 여름을 나가든, 그리했다고, 말씀 드릴게요. 와우, 저 쫌 멋있어진 듯! 팬레터는 오호츠크해로 낚시 가져든 비밀스럽게 건네 주시길, ㅋ, 원크!”

(서울에서 허진원)



조 · 러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7월 7일 롯데호텔서울

조·러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이 7월7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있었다.

한러경제발전협의회와 러시아연방과학 아카데미 중국 및 현대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하고 오깅그룹, 러시아국제통신사 '러시아 투데이', 사할린국영방송국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각계 인사 및 사할린 동포 이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와 러시아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을 마련한 나정주 한러경제발전협의회 공동의장은 환영사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이면서 떠나면 나라로만 여겨져 왔다”며 “조선과 러시아간에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은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비로소 조선과 러시아간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1884년 7월7일 조선-러시아간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또 “조약 체결 후 계속된 국난으로 기념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양국

이 공동으로 141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되었다”며 “이 행사가 역사적인 행사인 만큼 의미가 매우 크며 감격스럽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역설했다.

오전 10시 30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 대신 참석한 참사관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바실리 그루데브 사할린주 투자산업 대외관계부 장관, 야코블레바 예카테리나 RUSSIA TODAY 본부장, 석연화 한반도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러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7월 7일 롯데호텔서울 - The PeoPle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한러공동북극개발 프로젝트 발대식이 있었다. 한국측 오태경 회장과 러시아측 김영웅 박사의 세계평화자선재단 출범을 알리는 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오깅 ‘극동북극자원개발 그룹’(쿠릴열도 개발 프로젝트) 발대식 등을 가졌다.

[출처:www.ithepeople.kr]

리마렌코 지사: '투자등급은 기업-정부 협력의 척도'

(1면의 계속)

사할린 기업 공동체는 당국과 기업 사이의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금융 및 비금융 모두에서 이 지역의 지원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새로운 지표, 즉 노동의 질과 가용성, 젊은 전문가의 훈련 수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할린 지역은 지역 지원 취업률의 비율로 상위 3위 안에 든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기업에 대한 검사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사할린에서는 감독 활동이 작년에 비해 줄었지만 감압에 직면한 기업가의 비율은 10%에서 3%로 떨어졌다.

"국가 등급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할린 지역의 기업들이 낮은 순위의 지역보다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급 자체도 모든 수준에서 지역 당국의 성과를 요약하는 지표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기업가들이 준 평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사할린 지역의 기업가 권리 보호 위원인 안드레이 코왈렌코가 말했다.

주지사 산하 투자활동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등급 결과를 종합했다. 3위는 토마리 및 포로나이스크 지역이 차지했다. 2위는 코르사코브, 1위는 흠스크 시가 차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모든 기준에 대해 평가를 받았지만 경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원주민 의식: 페르페니아 만에서 바다 정령에게 음식 바치는 연례 의식 열려

연어 어획 시즌을 앞두고 인내만 해안에서 제33회 바다 정령에게 음식을 드리는 의식이 열렸다. 이 연례 의식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고, 바다의 풍요와 보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진행되어 왔다. 정령을 위한 제물은 지역 장로들이 준비하며, 그들은 전통 음식인 열매, 허브, 고기를 그릇에 담지만, 절대 생선은 넣지 않는다. 부족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녀 한 명씩 페르페니아 만의 파도에 깊은 절을 하며 제물을 바치고, 대규모 연송어기 동안 성공적인 어획을 기원한다.

포로나이스크 지역 안톤 카르푸코브 시장은 "이 행사는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상징하며 민족 전통 보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행사 준비와 진행에 참여한 모든 분과 포로나이스크 지역의 문화 유산을 경외심과 사랑으로 지켜주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축제는 우리 지역의 독특함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식 참가자들은 열매, 담배 등 상징적인 제물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만 물속에 내렸다. 현지 주민과 방문객들은 문화 전통 보존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행사 참석자들은 전통 가옥 건축 대회, 구명보트 타고 바다로 나가기, 활쏘기, 유골라 생선 손질, 썰매 뛰어넘기, 전통 레슬링, 투석 줄 던지기(마우트 던지기)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했다. 축제는 사할린 지역 원주민들이 전통 노래와 음악을 연주하는 콘서트로 마무리되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Александр Ким возглавил Минобрнайки Калмыкии

2 июля 2025 года Указом Главы Республики Калмыкия на должность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лмыкия назначен 38-летний экс-депутат Элист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обрания и директор средней школы № 3 города Элисты Александр Аркадьевич Ким.

В качестве директора элистинской школы № 3 Александр Ким вывел эт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 число лидеров республики по олимпиадным достижениям и поступлению выпускников в топовые вузы.

Школа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Ф Сергея Кравцова по время его визита.

Напомним, что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Александр Ким стал полуфиналист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https://t.me/saramkor>)

Нейрохирург Олег Пак награжден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Губернатор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день празднования 165-летия Владивостока вруч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лавному врачу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ейрохирургу Олегу Игоревичу Паку.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и жизненная позиция Олега Игоревича - это отличный пример для всех наших

студент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ведь он является защитником не только здоровья, но и челове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Олег Игоревич лично выезжал в Горловку и Луганск, оперировал бойцов и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под обстрелами, обучал коллег-медиков на местах и постоянно делился опытом с молодёжью», — отметил ректор ДВФУ Борис Коробец.

В 2018 году Олег Пак становился лауреа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лучшим врачам России «Призвание» за создание нов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медицине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ого лечения спинномозговых грыж у детей.

(<https://t.me/saramkor>)

Основателя Wildberries пригласили на открытие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В рамках участия в Петербург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ПМЭФ), я посетила дискуссионную площадку «Цифровые платформы и экосистемы – 2030: каким будет рынок?», на которой выступала Татьяна Ким, основатель Wildberries, глава Wildberries & Russ (RWB). Атмосфера форума была наполнена энергией и стремлением к диалогу, обмену идеями и мнениями. И, конечно, всем было интересно услышать и понять взгляды именитой гостьи на роль бизнес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ов, которые Татьяна выделила в комментарии для «РК», является ценность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Этот формат позволяет не только делиться идеями и проектами, но и получа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экспертов. Обмен мнениями способен привести к созданию эффективных решени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амбициозных идей.

Наиболее ценным опытом участия в ПМЭФ для нашей компании она счит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и открытого формата, где можно рассказать о проектах, услыша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и мнения экспертов — лучших в своих отраслях, найти вместе лучшие решения и созд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идей.

«К форуму мы готовились основательно и презентовали три глобальных блока, — сказала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РК» Татьяна Ким.

— Во-первых, РВБ, как системная поддержк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развитием нашей совместной с АСИ программ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латформа Роста», строим промпарки и запускаем полноценное и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бизнеса. В комплекс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олжны дать кратный рост и отли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для развития МСП в стране.

Во-вторых, РВБ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ая компания: мы считаем важным работать в т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и общества — поддержка демографии и появление собственной платформы с фондами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й.

В-третьих, РВБ это драйвер для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ежи и творчества. На полях форума прошло много встреч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едущих вузов страны,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одпи-

саны соглашения — мы постарались найти те точки, где мы можем быть полезны студентам, а они станут драйвером для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в будущем.

Кроме того, постепенно движемся в сторону экосистемности, развивая финтех и сервисы для удобства. К примеру, мы запустили читалку и сервис для продажи вещей (C2C), приобретенных у нас. Это такж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осознан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Я считаю, что такие цифровые платформы как наша могут и должны стать надежным партнером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многим вопросам».

РВБ (объединенная компания Wildberries и Russ) — российская компания, созданная в результате интеграции крупнейшего маркетплейса Wildberries и оператора наружной рекламы Russ Outdoor.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4 июля 2024 года.

Татьяна Ким проявляет интерес к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Ранее она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м вечере в рамках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ткрытия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27 октября 2024 года.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она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подчеркнув важность укрепления связей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и сохране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Выходные в любимом городе. Питер — место силы. Было время и пообщат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вмест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ткрытии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Важно помнить свои корни», — сказала Татьяна.

Теперь он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тить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е на 16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Принимая приглашение от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она сказала, что с глубоким уважением относится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традициям. 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которое утверждает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связей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взгляды Татьяны Ким способствуют не только развитию бизнеса, но и формируют гармонич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культура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идут рука об руку.

Лана Тян,
специаль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День семьи в Дальнем объединил поколения

8 июля в России отмечают один из самых трогате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Этот день посвящён ц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нашу жизнь ярче и насыщеннее — любви, верности и семейному теплу. Он напоминает о важности крепких семейных уз,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близких людей. В этот день улицы городов и сёл наполняются улыбками, музыкой и теплом семейных встреч.

В этом году в селе Дальнем праздник прошёл особенно ярко — на открытой площадке у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азвернулся настоящий Арт-квартал, который собрал множество семей, друзей и жителей села, чтобы вместе отметить важность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тепла и взаимной поддержки.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ждала ярк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зажигатель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местных и приглашённых артистов, ярмарка с уникальными изделиями ручной работы от талантливых мастеров,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арт-зоны, а завершением вечера стали краски холи и DJ-сет.

Одним из приглашённых гостей ст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которая подготовила удивитель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 дефиле в ханбоках. Участниками показа стали члены ЮСМООК 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Он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красоту и разнообразие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стюмов, подчеркивая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ций и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Нашу организацию —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мест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корейцев пригласили с дефиле в ханбоках. У нас есть такая красивая концепция — показать, как можно передать традиции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поэтому мы прямо на сцене



через всю композицию проводим основную мысль, как у нас молодые встречаются, влюбляются, рожают детей, создают свои семьи, а потом они стареют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нова передают, и так по кругу.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красот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и показать это единство», — поделилась активистка город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лия Стеблянская (Ча).

День семьи в Дальнем показал, как важно сохранять традиции и создавать новые моменты радости. Праздник стал не просто концертом, а настоящим фестивалем тепла и единства, где взрослые и дет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смогли вместе ощутить, что семья — это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у нас есть.

Текст и фото: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Нури Адисбекова

Участники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спели «прекрасное далё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А.С. Пушкина

В Омске прошёл 8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говор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формате офлайн и онлайн.

От «Прекрасного далё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о зажигательного К-попа — необыч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звучали в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А.С.Пушкина.

Выступали таланты из Омска,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аходки, а также из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Вьетнама и Японии.

Жител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и стран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онлайн. Песенный конкурс прошёл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мского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мимо вокальных данных и знания языка, участники показали яркие костюмы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Подобные праздники не только погружают омичей в мир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и истории, но и укрепляют дружественные связи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У нас каждый конкурс уникален. Как раз этот конкурс посвящён 25-летию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и, самое важное,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 подели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Ом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Александр Ким. «Ко-



нечно, выступать всегда волнительно, всегда есть какое-то напряжение, но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Мне кажется, они яркие.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моё выступление, мой танец», — добавила участница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Вера Давыдова.

(<https://12-kanal.ru>)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м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ООК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КНДР отмечают 31-ю годовщину смерти Ким Ир Сен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тмечается 31-я годовщина смерти основ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а Ким Ир Сена. В редакционной статье главн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Нодон синмун» говорится: «Наш великий лидер привёл революцию к победе без единой ошибки и отклонения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нии или проявления даже малейшей предвзятости». Газета называет Ким Ир Сена «несравненным великим человеком», чьи заветы успешно претворяются в жизнь. «Всё, о чём мечтает народ, будет воплощено в реальность»,- пишет «Нодон синмун». Газета сообщает также о торжественном собрании во Дворце детей и школьников Мангёндэ, собрании Женской лиги КНДР и возложении цветов к монументам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на холме Мансудэ в Пхеньяне.

Ким Мин Сок утверждён в должност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3 июл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няло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назначении Ким Мин Сок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Он был предложен в качестве кандидата сразу посл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состоявшихся 3 июня. Депутаты от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в голосовании не участвовали. Кандидатуру Ким Мин Сока поддержали 173 из 179 депутатов,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на заседании. Трое проголосовали против и трое воздержались. Перед голосованием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У Вон Сик заявил: «Очень прискорбно, что процесс утверждени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проводится без достижения согласия двух крупнейш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требовала от Ким Мин Сока добровольно снять свою кандидатуру с голосования, считая е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зглави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фсоюз запланировали масштабную забастовку

Корейская конфедерация профсоюзов (KCTU) запланировала проведение масштабной забастовки с требованием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принять законы в поддержку трудящихся. Как заявил 2 июл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KCTU Ян Гён Су, профсоюзы требую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антирабочей политики предыдущ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 Сок Ёля. Профсоюзы настаивают, в частности, на принятии «закона о жёлтом конверте», который огранич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руководства компаний подавать иски против работников с требованием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нанесённого в ходе законных трудовых споров, в частности забастовок. Он дважды принимал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но Юн Сок Ёль накладывал на него вето. На 16 июля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ведение забастовк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митинга в центре Сеула, а 19 июля пройдёт ещё один митинг и массовый марш.

Сеул стремится вернуть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ернуть на родину шестерых граждан КНДР, которые случайно оказались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дах. Двое из них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в марте в Жёлтом море, а четверо – в мае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Все они отказались остаться в РК, выразив желание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С гуманитар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емится обеспечить их скорейшую и безопасную отправку,- заявил 7 июля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у Бён Сам. Пхеньян не отвечает на запросы Сеула, поэтому передач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может пройти морским путём, как это было в 2017 году. Тогд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опроводила спасённ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ыбаков до Северной разграничительной линии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после чего они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Samsung получила заказ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авучего завода СПГ

Компания Samsung Heavy Industries получила заказ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авучего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СПГ) в Мозамбике стоимостью 637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контракт подписан с европейской судоходной компанией, работающей в Африке. Samsung Heavy Industries стремится ежегодно получать от одного до двух заказов на морские объекты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энергии на мировых рынках. С начала года компания получила заказы на сумму 3 млрд 300 млн долла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ъём заказов составил 7 млрд 30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июня портфель заказов судостроителя составлял 26,5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для загрузки верфей компании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трёх лет.

Экспорт мороженого из РК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65,5 млн долларов

Экспорт мороженого из Р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достиг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аксимума. Как сообщили 7 ию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н составил 65,5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23,1%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Крупнейшим покупателе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ороженого являются США, на долю которых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пришлось 38% всего экспорта. Далее следуют Филиппины и Кита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кспорт мороженого составил 91,5 млн долларов.

Посол РК в РФ Ли До Хун провёл прощальный приём

7 июля в посольстве РК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ся прощальный приём по случаю оконча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и посла Ли До Хуна.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 отметил: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и доброму отношению многих людей, мне удалось пройти, возможно, самый сложный период в истории южн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дипломат Ли До Хун, назначенный послом в России в конце июля 2023 года, завершил 40-летнюю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карьеру. Из-за проблем со здоровьем о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в инвалидной коляске. До назначения нового посла работой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руководить временный поверенный.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дало указание послам в ключевых странах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KBS World

Пхеньян поздравил лидера коммунистов России

Москва, 8,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правила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ослание переизбранному председателю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ПК) направил поздравление Геннадия Зюганову, который был единогласно переизбра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общает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ТПК направляет свои тепл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и товарищеские приветствия в связи с переизбранием товарища Зюганов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ы выражаем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товарищеские и необычные по своей сути отношения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оронами будут активно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которые вступают в полноценный золотой век», — говорится в поздравлении.

Судебный иск без срока давности

Сеул, 8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вынес решение в пользу 107-летн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жертвы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Японии во время войны в рамках иска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поданного против японской компании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Гражданское апелляци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льного окружного суда Сеула отменило решение суда низшей инстанции, вынесенное в 2022 году, которое отклонило иск Ким Хан Су о взыскании компенсации с японской компании на том основании, что срок исковой давности по делу истек. В мае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обязал Mitsubishi Heavy Industries выплатить Киму компенсацию в размере 100 миллионов вон (73 400 долларов США) спустя примерно 80 л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был призван на принуд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Японии во время войны. Несмотря на решение суда, компания Mitsubishi Heavy Industries вряд ли выплатит компенсацию.

Ким сказал, что в 1944 году,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1910–1945 годах, его заставили работать на верфи, принадлежавшей японской фирме. В предыдущих исках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связанных с принудительным трудом, суды в основном постановили, что срок исковой давности истек в мае 2015 года, через три

год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ерховный суд впервые признал законное право корейцев,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Японии, на возмещение ущерба. Граждан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что законное право требовать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утрачивается через три год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страдавший узнает о причиненном вреде и установит личность правонарушителя. Но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вынес решение в пользу Кима, постановив, что срок исковой давности по искам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связанного с принудительным трудом, должен рассчитываться на основании отдельн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от 2018 года, что фактически отодвигает истечение срока исковой давности. Иск Кима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против Mitsubishi был подан в 2019 году.

В 2018 году Верховный суд вынес историческое решение,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японские компании должны были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корейца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Токио. Однако Япония заявила, что все подобные вопросы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были урегулирова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говором 1965 года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gazeta-rk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20 миллионов

Сеул, 8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Hyundai, 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ежегодно посещающих Южную Корею,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т 2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что поможет оживить вялое внутреннее потребление в стране.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за первые четыре месяца этого года обще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достигло 5,58 миллиона, что на 14,6%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итайские туристы составили наибольшую долю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изнаку — 28,1%,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японцы — 18,7%. Согласно прогнозу, к концу года общее число достигнет рекордных 20,09 миллиона. Согласно анализу валового внутреннего продукта основных стран, обменных курсов и средних расходов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отчете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получит 20,2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дохода от туризма, что эквивалентно примерно 2,5%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внутренних расходов стра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асходы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растут вместе с увеличением числа зарубежных гост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ходы от иностранного туризм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росли на 9,2%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и составили 16,4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апрель этого года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достиг 5,62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18,6%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тчете указано, что внутренние расходы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 прогнозам, увеличатся на 2,5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из-за роста расходов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внесет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общую экономику страны, учитывая как прямые, так и косвенные эффекты на фоне стагнации внутренних расходов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черкивая важность увеличения доходов от туризма и привлечения большего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авторы доклада предлагают усилить брендинг Южной Кореи, используя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контент, повышая удобство платежей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инвестируя в местную туристическ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улучшая доступность, поддерживая стартапы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и расширяя возможност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для малоимущих.

gazeta-rk

Выдача субсидий гражданам РК начнётся 21 июля

С 21 июля граждане РК начнут получать субсидии в рамк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инициативы,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5 июля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одобр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размере 31 трлн 800 млрд вон (23 млрд 30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инятого ранее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все граждане, проживающие в стран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8 июня, получат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150 тыс. вон (109 доллар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адресная помощь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на основе уровня дохода. Лица из домохозяйств,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грани бедности, и семьи с одним родителем получат по 300 тыс. вон (219 долларов), в то время как получатели базового пособия на жизнь получат еще 400 тыс. вон

(292 доллара). Для содействи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му рег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те, кто проживает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у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30 тыс. вон (22 долларов). Жители 84 сельских и рыболовецких общин, столкнувшихся с сокращ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полу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50 тыс. вон (36 долларов). В число получателей включены иностранцы с видом на жительство, супруг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а также признанные беженцами. Субсидии будут выдаваться в вид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упонов.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субсидий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2 сентября. В ходе второго раунда выплат с 22 сентября по 31 октября 90% наименее обеспеченных граждан получат по 100 тысяч вон (73 доллара).

KBS World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в 2026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с президентом Федерации лыжных гонок России Еленой Вяльбе ход подготовки к чемпионату России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2026 года. Мероприятие с участием сильнейших атлетов страны состо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Как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азвитие спорт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населения. Сегодня почти 70%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едут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и вовлечены в спорт. Такой показатель достигнут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ому развит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Недав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один из этапов Кубка России по лыжероллера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планируем провести на Сахалине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У нас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мероприятий столь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том числе современные спорткомплексы и лыжные трассы. Они подходят не только для начинающих спортсменов и физкультурников, но и для атлетов уровня сборно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новится спортивным центр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в феврале 2026 года.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будут соревноваться по 7 дисциплинам: спринт, гонка с раздельного старта, масс-старт, гонка преследования, эстафета, командный спринт, после состоится марафон на 50 км.

- Я была одним из инициаторов провед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Если регион готов принима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такого уровня, мы должны его поддерживать. Для участия в этапе Кубка России по лыжероллерам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ала вся сборная, собирались сотни болельщиков. Получился настоящий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В мире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мест, где проходят лыжероллер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 подъемом в гору. Это Скандинавия, Италия и теперь к ним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тметила Елена Вяльб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лава Федерации предложила создать на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м комплексе «Триумф» лыжероллерную трассу. Во время недавн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портсменам очень повезло с погодой, но с появлением площадки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можно будет сделать круглогодичными. Предложение проработа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 Мы развива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любителей лыж и лыжероллеров. И будем двигатьс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Воспитанник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енирую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Углезаводске. Всего в спортшколе занимается 400 лыжников. Самые выдающиеся гонщики: Данил Нечипоренко,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и, Софья Кузнецова,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и, обладательница золотой медали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Анна Кожина,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и, золотой и серебряный призер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Мурманске. Всего по области лыжными гонками занимаются около 90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них более 4 тысяч женщин.

Губернатор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остиницы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объекто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строят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стиничные комплексы будут иметь не только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е номера, но и полноценную деловую,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а также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лечеб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Ход работ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гостиничных комплексов — это не прос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даний, а инвестиция в будуще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все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 Появление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тановится доступнее и современнее.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задача,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сдела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еще более узнаваемой. Сейчас также работаем над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новой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м приступать к работа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ервый объект строится в районе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В составе комплекса — 13 шале и основное здание гостиницы, где расположатся магазины, рестораны, банкетный зал, бассейн и современная сра-зона. На площадке ежедневно задействованы свыше 150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ход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дрядчик предпринял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по защите склонов и грунтов — возведены подпорные стены, реализована комплексная система мониторинга. Проверка состояния почвы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одолжается — каких-либо отклонений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 Мы работаем строго по намеченному плану, без простоев. К концу года намерены завершить все монолитные работы. Параллельно будет двигаться установка светопрозрач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В 2028 году планируем

сдать объект,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чика.

Второй объект — крупный гостинично-деловой комплекс. Сейчас здесь ведётся заливка 700 кубометров бетона, уже готовы второй и частично третий этажи, а к августу работы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ы.

Генеральный план комплекс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168 стандартных номеров, 21 полулюкса и одно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номера. Есть подземный паркинг на 38 машиномест. Кроме того,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конференц-зала на 500 гостей, банкетного зала, ночного клуба, сра-зоны и бизнес-лаунжей.

— Заливка бетона и монтаж этажей идут по ускоренному графику: уже готовы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этажей, а к концу ноября планируем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коробку здания. Чтобы в декабре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на верхних этажах и колоннах. Работаем плотно, без отставаний. Планируем создать самый современный курортно-деловой центр региона,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чика.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развитию в комплексе медицинского и санаторного направлений: помимо бассейнов и бань, там разместят медицинские кабинеты, косметологию, массажные и процедурные зоны с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ой и лечебными грязями.

— Обратит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организацию санато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в гостиниц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усмотреть помещения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этого, чтобы у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ходить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процедуры, отдыхать на выходных или во время отпуска в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Развитие санаторной функции 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внутреннему туризм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ри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ресторана, который откроет свои двери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уже к следующе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езону.

— Идёт реализация нескольких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овысят уровень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города. Учитывая популярность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среди наших жителей, фуд-холл — новая зон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 также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а, — отмет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который вмест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оездке по объектам.

Отметим, всего на TOP «Сахалин» бизнес реализует 73 проекта. 17 из них уже осуществлены. В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вложено 39,1 млрд рублей инвестиций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186,6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но 3,3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Резидентам TOP доступны значите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и преференц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сниженные до 7,6%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нулевые налоги на землю первые 3–5 лет, на имущество и прибыль — первые 5 лет, сниженные ставки по указанным налогам с 6-го по 10-й годы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й и других видов поддержки.

Форум «Юмор и смех. Вне формата» подарил сахалинцам секретные знания о лучших шутках для КВН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ся трёхдневны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интенсив, посвящённый созданию креативного контента для выступлений в КВН. Форум «Юмор и смех. Вне формата» объединил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десятки талантливых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хотя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развиваться в индустрии, связанной с шутками и веселье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готовили серию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 сценарной работе, искусству презентации и публич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поиску тем и созданию смешных скетч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интенсив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Наставниками на форуме стали участники команды КВН «Сделано на Сахалине». Коллектив, который уже два года успешно выступает на федеральной сцене, делится с молодёжью бесценным опытом борьбы с сильнейшими конкурентами со всей России. Кроме того, гостями форума стали опытные сценаристы и участники лиг КВН разного уровня.

- КВН на Сахалине сейчас переживает расцвет — это по-настоящему новая,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аяся история для тех, кто хочет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 креативной индустрии. Казалось бы, только недавно состоялся Летний Кубок КВН. И вот уже появилас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лига КВН, фестивали, команды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Молниеносный рост популярности движения КВН — это огромный плюс и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вития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молодёжи, тем более с такими опытными наставниками, — поделился директор МАУ «Центр молодёжных инициатив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а» Дмитрий Шпачук.

Участник Премьер-лиги КВН Александр Пак и автор команд КВН Высшей лиги, редактор чемпионата КВН Прикамья Марк Челомбичский провели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юмору «Как писать шутки». Фронтмен команды «Сделано на Сахалине» Чингиз Матхалов рассказал форумчанам, как работать на сцене и завоёвывать симпатии зрителей. Его коллега Татьяна Степанова поделилась секретами поиска спонсора в пределах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объяснила, как организовать свою

игру КВН. Директор команды Екатерина Фесенко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ФОРМАльный подход» рассказала о том, как готовиться к выступлению,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а презентацию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реквизита из подру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Кроме этого, сахалинцев жд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технике речи и подготовке командной визитки,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работа с режиссёрами и сценаристами.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частью трёхдневного форума стал отчётный концерт: там островитяне представил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номера, которые улучшили и отредактировали по итога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Около 60% участников дебют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тавляли рабочую молодёж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то позволило командам добавить в свои выступления не только местный колорит, н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фишки.

- Н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движение КВН только начинает расти, и для нас это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форум стал очень полезным в плане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Как строить шутки, где искать темы, как презентовать команду — мы впитывали буквально всё. Смирныховская команда «Сердце острова» очень тщательно готовилась к этой поездке: мы много репетировали, редактировали свои номера и в целом, я считаю, проявили себя прекрасн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для нашего района это был дебют, ребятам удалось завоевать путёвку в ¼ финала чемпионата КВ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перь будем готовиться к сентябрьской поезд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собенно вдохновлён наш фронтмен Ярослав Богданов — очень заряженный, яркий мальчишка. Я думаю, его ждёт большое будущее в КВН, — поделилась специалист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МО Юлия Ситникова.

Движение КВ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вается с поддержкой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анее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ключил соглашение с директором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АМИК» Александром Масляковым о созда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лиги КВН с базированием на Сахалине. Теперь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о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м телепроектом КВН —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двигать и развивать индустрию юмора с поддержкой федеральных коллег.

Ремонт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ат в август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авершаются дорожные работы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от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до улицы Ленина. Ход работ на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улиц города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рядчик уже установил уличные светильники, ведётся укладка плиточного покрытия тротуара с южной стороны, а также устройство нового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проезжей части. Сейчас дорожники трудятся на участке от улицы Чехова до проспекта Мира — демонтируют старую плитку и бордюрный камень, фрезеруют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е покрытие проезды, устанавливают гранитные бортовые камни, а также продолжают обустройство плиточного покрытия тротуара по северной стороне между улицами Ленина и Чехова.

- Мы следим, чтобы дворы и дорог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активно благоустраивались. Делае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временным, удобным и красивым городом, задающим высокую планку для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ласти. Финальный этап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 это новые дороги, комфортные тротуары и зелё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Работы идут в центре, поэтому важно, чтобы они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поэтапно, чтобы горожане испытывали минимум неудобст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монт данного участка улицы - финальный шаг в создании единого облика «праздничного квадрата», включающе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проспект Победы, улицы Ленина и Горького.

- Работы на участке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идут в графике, в целом замечаний нет. Поставили задачу департаменту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к 15 августа все здесь закончить. Продолжим и дальше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работу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 отметил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также завершен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в район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ереезда, где появятся новые тротуары и зелёные зо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этом участке прове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развитие в проект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или переустройству инжене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 созданию эффективной ливневой канализации — впервы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рубу крупного диаметра провели под действующе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веткой, чтобы объединить систему.

В эт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улицы Бумажной. Здесь выполняется замена дорожного основания и обустройство новых инжене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Завершатся работы и на улице Хабаровская от улицы Комсомольской до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Подрядчик заасфальтирует дорогу, оборудует тротуары, установит систему освещения. Также в 2025 году будет завершё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на проспекте Мира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재외동포청, 고려인 청소년들과 소통

4일 안성소재 로템나무국제대안학교 재학생 30여명 초청해 간담회 개최
이상덕 청장 "학생들 고충에 깊이 공감...도움될 수 있는 정책 모색" 약속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러시아와 CIS(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부모와 함께 중도입국한 고려인 청소년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4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부영타워 30층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과 함께 하는 고려인 청소년과의 대화'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로템나무국제대안학교(이사장 소학섭)에 재학하는 고려인 고등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또 안성교육지원청, 아시아발전재단,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인청소년교육협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와 정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김안나 학생은 "다른 한국 학생들처럼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싶은데, 모든 것이 어렵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에 돌아온건데 생각보다는 낯설고 생활 곳곳에서 차별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것 같아 움츠러들 때도 많다"고 말했다.

로템나무 국제대안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모교 교사로 재직중인 이서현 씨는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막막해서 그저 주변에 털어놓기만 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학생들이 고민을 말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기회가 있어 감사하다"며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인 듯하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언어, 문화, 교육, 진로 등 한국 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가 하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소학섭 이사장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재외동포청에 감사하다"면서 "정부가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 대응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승덕 안성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이렇게 고려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것은 처음"이라며 "안성시 교육청도 하반기에 이주 배경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예정이며, 앞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동포들에 대한 내국인의 이해가 부족한 점도 안타깝지만 고려인 청소년들이 선조들의 역사에 대해 스스로 더 알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독려했으며, 체예진 KGN 이사장은 "한국에 계속 살고자 하는 학생 수가 절대적인 만큼 한국어 공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상덕 청장은 "동포청은 독립운동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고려인 선조들의 자손인 고려인 청소년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키워나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한 많은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이기성 정책국장은 오는 7월 11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2025 전반기 고려인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시아발전재단 주최로 '고려인 청소년과 학교밖 교육', '고려인 청소년과 진로교육 멘토링'이라는 주제의 포럼에는 손은숙 김해글로벌 청소년센터장, 소학섭 이사장, 김기영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전득안 광주 고려인국제학교 이사장, 김동원 양산 고려인지원센터장, 체예진 KGN 이사장 등이 대거 참여한다.

(재외동포청 제공)

동포청, 47개국 한글학교 교사들 초청해 역량강화 연수 실시

7월14~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서 교사·교장 240명 실습 위주 교육
이상덕 청장 "현장 중심의 실용 연수가 되도록 운영하겠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7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 세계 47개국 한글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진행한다.

교사 간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연수에는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 24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글학교는 현재 전 세계 116개국 1천464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만4천500명의 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고국 초청 연수는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

올해 참가자들은 실습 중심의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연수에 참여한다. 6월 23일부터 3주간 온라인 사전 연수(개요 및 이론)를 받았다.

한국어 수준별 말하기·쓰기 교수법 워크숍을 비롯해 △놀이 및 그림책 활용 수업법 △학교 운영 전략 공유 등 교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학교인 안산 원곡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참관함으로써 실제 교육 사례를 기반으로 한 현장 학습도 한다.

참가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가장 높은 AI시대를 반영한 한국어 교육 방법도 이번 초청 연수의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참가자들은 사전 온라인 강의 '한국어 수업에서의 AI 도구 활용'을 통해 이론을 먼저 익힌 후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AI 활용 한국어 수업 워크숍'에서 실습한다. 이를 통해 최신 교육 기술을 수업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된다.

이 외에도 교사 맞춤형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토르콘서트 '나의 말, 나의 이름, 나의 이야기'에서는 한글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모여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한다.

재외동포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심리 강연을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심리적 치유 방안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한글학교 교사들과 재외동포청 한글학교 담당자들이 직접 만나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운영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대한민국은 지금,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로 연결되는 중"

재외동포청, 홍보영상 '재외동포가 있다,
대한민국을 잇다' 공개
재외동포의 중요성 '힙하고 색다르게 표현...
"MZ세대도 공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민들에게 전 세계 재외동포의 모국기여 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재외동포가 있다, 대한민국을 잇다'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7월 4일 공개했다.

이번 홍보영상은 세계 속 재외동포가 모국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나라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영상에서는 "재외동포가 독립·배움·경제·문화를 세계로 잇는다"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MZ세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다르게 연출했다.

이번 영상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tvN 방송을 통해 송출되며, 해외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SNS(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블로그)를 통해서도 동시에 공개된다.

특히 유튜브(youtube.com/@OKAKOREA)에서는 영상 시청 인증 및 댓글 달기 등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재외동포의 역할과 활동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들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모국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희생과 기여를 아끼지 않았으며 지금은 한류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국기여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세계 한인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132인 명단 공개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의견수렴' 착수의견제출 시한,
오는 7월19일 자정(한국시간)까지

정부가 올해 '세계 한인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자로는 김일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사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등 개인 116명과, 말레이시아한인회 등 16개 단체가 선정됐다.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후보자 명단 및 공적

https://www.oka.go.kr/static/libs/SynapViewerSkin/doc.html?fn=814a101fc9f5055c3dfb2d7d745a929c&rs=/attach/cms/board/2025/07/result/202507

재외동포청은 '제19회 세계한인의 날(10월5일)'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포상 후보자 명단을 공지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절차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7월4일부터 19일 24시(한국시간)까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상 후보자 공개와 함께 의견을 수렴한다.

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메일(okapolicy@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별도 의견제출 양식은 없으며,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 제출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제출한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 회신은 하지 않는다.

후보자 명단은 최종 추천 대상자가 아니며, 이번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상훈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후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재외동포청은 밝혔다.

(재외동포청)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Я считаю, что такое надо проводить как можно чаще: люди скучают, строят машины, их нужно показывать. А зрители требуют зрелищ, и сегодняшний аншлаг — прямо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 поделился организатор Александр Дрын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чемпионат области по трофи-рейду.

По окончании борьбы среди автомобилей на трассу вышли люди. В рамках «Забега сильных» участники преодолели путь, уже изъезженный и разбитый внедорожниками.

대규모 러시아 오토바이 레이스 'No Place to Run 2025', сах알린에서 개최

'노 플레이스 투 런 2025(No Place to Run 2025)' 오토바이 레이스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сах알린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섬의 경관이 뛰어난 트랙을 누비며 자신의 기량과 인내력을 증명할 예정이다. 이는 сах알린주 스포츠부 공식 VK(ВКонтакте) 그룹을 통해 발표되었다.

сах알린주에서 열리는 오토바이 익스트림 앤듀로(Enduro) 레이스는 이미 10년 이상 이어져 왔다. 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들이 이 종목의 대회에 참가했다. 경험이 풍부한 라이더와 초보자 모두를 위한 독특한 트랙이 이 경주의 주요 특징이다.

'노 플레이스 투 런 2025' 개막식은 7월 26일 오후 12시, 코르사코브 지역의 '푸쉬스트' 간이비행장에서 열린다. 누구나 화려한 경주를 관망하고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다.

Масштабную гонку России No Place to Run 2025 проведут на Сахалине

Гонку на мотоциклах No Place to Run 2025 проведут на Сахалине с 26 по 29 июля.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еодолеют живописные трассы острова, доказывая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и выносливость.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официальной групп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Контакте».

Экстрим-эндуро на мотоцикла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ят уже больше десяти лет. За это врем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ысячи любителе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Уникальные трассы как для опытных райдеров, так и для начинающих — глав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гонки.

Открытие No Place to Run 2025 состоится 26 июля в 12:00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Увидеть зрелищные заезды и поддержать спортсменов может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모네론 섬은 진정한 천국이었습니다" - 자연공원 신규 투어에 대한 сах알린 주민들의 소감

сах알린주 야블로츠노예 마을에서 모네론 섬으로 가는 새로운 관광 루트가 개설되었다. 흙스크 주민들은 이미 투어를 체험하고 소감을 공유했다. 이는 텔레그램 채널 '우리 흙스크'를 통해 전해졌다.

선박 선장이자 동시에 신규 투어 주최자인 유리 파쉬코브는 모네론 섬까지 이동하는 데 7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투어는 2박 3일로 설계되었으며, 낚시, 보트 체험, 다이빙, 자연공원 명소 방문 등이 포함된다.

흙스크 출신의 알렉산드라 쿨리코와도 이 흥미진진한 모험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이 배는 며칠 동안 우리에게 집이 되어 주었고, 배려와 편안함을 제공해 준 선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착한 섬은 진정한 천국이었습니다. 자연은 수정처럼 맑은 물과 그림 같은 풍경으로 장관이었습니다. 머릿결을 스치는 바람, 해상 탐험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동화 속 같았습니다. 선원들과 다른 투어 참가자들과의 대화는 여행에 특별한 매력을 더해주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모네론 섬은 러시아 유일의 해양 자연공원이다. 수심 중

의 해조류가 서식하며, 연안 해역에는 바다표범과 스텔러 바다사자가 서식하고 있다. 해안선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만들로 둘러싸여 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선착장 근처에는 배란다가 딸린 카페가 운영 중이다. 원하는 사람들은 보트를 임대해 낚시를 가거나, 슬레피코브스키 곶으로 갈 수도 있다.

«Монерон оказался настоящим раем» —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о новом туре на природный парк

Нов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на остров Монерон из села Яблочное откры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тели Холмска уже успели опробовать тур и по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Наш Холмск».

Капитан судна и,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организатор нового тура Юрий Пашк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переход до Монерона занимает семь часов. Рассчитана поездка на три дня и две ночи. В него входит рыбалка, прогулки на катере, дайвинг и посещен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природного парка.

Одной из участниц увлекательного приключения стала холмчанка Александра Куликова.

«Судно стало нашим домом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пасибо всему экипажу за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и созданный комфорт. Остров, на который мы прибыли, оказался настоящим раем. Природа великолепна. Кристально чистая вода и живописные пейзажи. Ветер в волосах, шум волн от морских прогулок, сказка. Общение с командой и другими участниками тура добавило особый колорит путешествию», — поделилась островитянка.

Отметим, что Монерон —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морской природный парк в стране. Здесь гнездятся десятки видов морских птиц, а в прибрежных водах обитают нерпы, сивучи. Его берега изрезаны живописными бухтами.

Для удобства туристов рядом с причалом работает кафе с верандой. Желающие могут также арендовать катер и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нем на рыбалку, либо на мыс Слепиковского.

(сах알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2025년 7월 8일 향년77세를 일기로 сах알린주두마 4기 의원 유가이 올레그가 중환으로 별세하였음을 부고하여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сах알린의 잘 알려진 기업인으로, 한때 сах알린 한인을 위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유가이 올레그의 밝은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НКО АСК глубоко скорбит по поводу кончины Югай Олег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и выражает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сах알린한인연합회는 сах알린주두마 전 의원 유가이 올레그가 별세하였음을 부고합니다.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 о р р . с ч е т :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